

회장 인사 말씀

전국에 계신 안동김씨 현종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벌써 2011년 신묘년도 저물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유난히도 긴 장마와 늦더위에 움추렸던 마음도 맑은 가을처럼 활짝 열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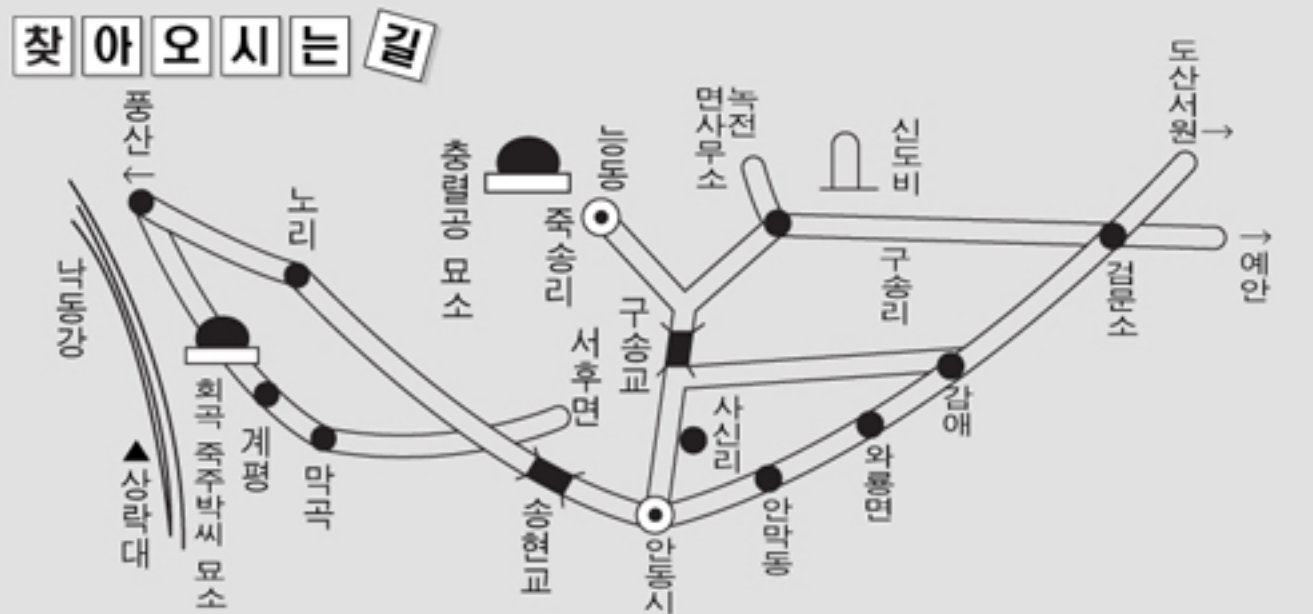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조짐이 좋지 않고 증시가 폭락하고 있고 세계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으니 경제는 더욱 나빠지는 것 같고 우리 국민의 마음도 착잡한 심정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과 같이 좋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좋은 시기가 돌아오니 참고 견디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의 저력이 세계 만방에 표출되고 끈기와 근면성과 빠른 판단력이 다시 한 번 과시될 때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 선조 800주년 탄신 추모제를 전 종인이 뿔뿔 뿔쳐 조출하면서도 알차게 치루어 내는데에는 화합과 단결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동시와 안동김씨대종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 종인이 참여하여 깨끗하고 알찬 추모제가 되기 위하여는 추모제 경비 문제에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지원 외에 우리 종회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조달에 대해서도 원활한 소통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에 다시 한 번 각 파종회의 협조와 전종인의 참여를 부탁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웁니다. 총렬공 탄신 800주년 추모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우리가 명문갑족의 후손임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조상 어른께 효도 한 번 한다는 마음으로 알찬 추모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대종회보가 여러분의 가정만은 도착하는 시기가 매년 조상께 드리는 향사(享祀)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같이 향사에 참가하여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또 혈족간의 친목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 가족이 화합하시고 행복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내내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봉 회 올림

安東 忠烈公 享祀 日程

1. **행사분정 회의**
 - 11월 3일 오후 7시부터
 2. **총렬공 상계 6대 歳一祀**
 - 11월 3일(음력 10월 8일 토요일)
오후 9시경
 3. **총렬공 향사**
 - 11월 4일(음력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1시
 4. **할머님(냉면국대부인)향사**
 - 11월 4일(음력 10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5. **식사시간**
 - 11월 3일 저녁식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 11월 4일 아침식사 오전 9시까지
 - 11월 4일 점심식사 오전 11시 30분부터
 6. **기타사항**
 - 식사 인원 파악에 필요하오니 단체
참제시 대총회에 통보 바랍니다.



- ① 안동→안막동→외룡동→감에→검문소→구송리 신도비→능동(총렬공 묘소(25km))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3
② 안동→사신리→구송교→능동 총렬공 묘소(17km)
③ 안동→송허교→막곡→계평→회곡리 죽주박씨 묘소(12km)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6

선조 시향 일정표

	향사 선조님	향사일	장 소	비 고
1	忠烈公(諱 方慶)之墓 (중시조)	음10. 9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능동)	02)2244-3717 (대종회) 054)855-2688 (재실,김봉희)
2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壇	음10. 9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0	02)2244-3717 (대종회) 054)853-0541 (재실,김봉희)
3	文英公(諱 恂)之墓	음10. 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031)424-5292 (재실- 김재영)
4	密直司事公(諱七祐)之壇	11월(양) 첫째 일요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2리 산27	010-5870-7501 (김덕목-회장)
5	開城尹公(諱 七霖)之壇	10월(양)둘째 일요일12: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	010-5215-6752 (김이경-회장)
6	判書公(諱?小直)之壇 大提學公(諱 承用)之墓 評理公(諱 厚)之墓 郡事公(諱 七陽)之墓	양 4월 두번째일요일	墓所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산 105 齋室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638	011-745-0011 (김수인-회장)
7	掌令公(諱 玖)之壇, 典書公(諱 成牧)之墓	음 10월 初丁日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496-1(학당부락)	010-5409-3009 (김근성-회장)
8	副使公(諱 天順)之壇	음10. 16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011-9038-5799 (김태호-회장)
9	良間公(諱 承澤)之壇 平章事公(諱 昂)之壇 文溫公(諱 九容)之壇	10월(양) 셋째 일요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정)	010-6235-1535 (김영국-회장)
10	安靖公(諱 九德)之墓	음10월 첫째일요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44	010-9317-3882 (김재덕-회장)
11	都評議公(諱 九鼎)之墓	음10. 4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57 (행촌)	010-2824-4074 (김창희-회장)
12	大護軍公(諱 儒)之墓	음3. 14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54 (상촌)	010-4270-0506 (김경종-회장)
13	文肅公(諱永徽)之壇, 上洛伯公(諱 縝)之壇, 提學公(諱 益達)之壇,	음10. 6	충남 천안시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네비 수신면 장산리 70-1	010-9589-0377 (김상천-회장)
14	貞簡公(諱 永熙)之壇, 嶺三司事公(諱 藏)之壇, 按察使公(諱 士廉)之墓	음10. 5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167	016-482-3158 (김태문-회장)
15	翼元公(諱 士衡)之墓	음10. 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14-2	02)836-5631, 010-9189-4078 (김만길-사무국장)
16	掌令公(諱)之壇, 書雲觀正公(諱 綏)之壇	음10.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42-5	02)849-1750,010-5760-6398 (김규은-사무국장)
17	正義公(諱 哲)之壇	음 10. 8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431	010-3752-5403 (김원식-회장)

총렬공 탄신 800주년 추모제전을 위한 성금모금

총렬공 탄신 800주년 추모제전을 위한 성금을 아래와 같이 모금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금기간 : 2011년 10월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2012년 5월 예정)
2. 모금액 :
3. 모금대상 : 안동김씨 종친 누구나
4. 개인별모금한도 : 금액한도 없음.

5. 입금방법
계좌입금 국민은행 356201-04-132759 • 농협은행 351-0222-3309-83
예금주 : 안동김씨대중회
지로용지에 입금도 가능함
6. 계좌입금후 대중회
전화 02)2244-3717로 통보바랍니다.

안동김씨대종회장 김 봉 회

대종회 행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현종 여러 어른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금년 따라 일기의 변화로 인한 참으로 어려운 시간도 보내고 있고, 정보화 시대의 예기치 못한 각계 사회의 갈등과 증오로 미래의 희망을 접하기 어려운 시련을 보내고 있는 듯 싶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종 여러분의 지극한 도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대종회장의 임무를 이렇다 할 만한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니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대종회에 가서 기고를 부탁하기에 이렇게 졸필(拙筆)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천안시의 성실한 노인회원의 한 사람으로 봉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여가를 선용하면서 활력을 갖고 즐겁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훌륭한 안동김문 선조님들의 후덕한 음덕이요, 후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현종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생을 살겠습니다.

다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흐뭇한 것은 현 대종회장 봉회 회장은 종사에 젊어서부터 참여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능력과 박력이 남달리 뛰어나 섬세한 추진력 또한 갖추었음을 자랑해 드리고 싶고, 아마도 우리 종중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리라 믿기에 마음이 한 편 가벼우면서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 문종의 가장 큰 행사가 될 중시조 할아버님의 탄신 800주년 행사도 계획 단계부터 관련된 각계 각층의 기관과 인사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차질없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니 이 또한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 현종들께서도 뜨거운 협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느 문헌에 충렬공 어머니께서 중시조 할아버님을 임신하실 때에 구름이 안개를 잡수시는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입과 코에는 항상 운기(雲氣)가 남아 있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신선 중에서 점지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충렬공은 아마도 하늘이 점지한 크나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 위대한 할아버님의 참다운 모습을 그 시대의 각종 문헌을 살펴 고증에 차질없이 영정을 모셔 뵈지만 출장입상(出將入相)하셨다고 하는 충렬공(忠烈公)은 행장(行狀)을 살펴 보아도 그 능률한 장군의 입상(入狀)이 준비되지 않아 못내 아쉬운 생각 뿐입니다. 그리하여 현 회장님도 기회가 되면 참고하시어 여유가 되면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송조목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현종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대종회 명예회장 제학공파 남음

송의전 추계 대제 봉행

지난 9월 29일(음 9월 3일) 11시 정각 고려 송의전 추계 대제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송의전 현지에서 200여 명의 후손 등을 비롯한 참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거행된 이 날 제례에는 초헌관에 김규선 연천부군수, 아헌관에 정연웅(영일정 씨), 포은공 종약원 사무국장, 종헌관에 송의전 참봉 왕운현이었고 충무공 할아버님 분헌관은 대종회장이 하였다. 안동김씨 종원은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명회 전 대종회사무총장, 관록 전 대종회 사무총장, 광도(文)대종회 이사, (文)재호, (都)대회 종인이 참석하였다. 고려 송의전에는 고려 4왕(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고려 16공신(북지겸, 홍유, 신승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이 배향되어 있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3일에 제례를 드린다. 명회 전 대종회 사무총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송의전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효문화 뿌리 축제 개최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즐거우며 함께해 효”라는 주제로 제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87개 문종이 참가한 가운데 대

전 대전만의 특성을 살린 흥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문종 퍼레이드’는 문종별 성씨기를 선두로 전국 136개 문종이 입장해 문종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웅장한 퍼레이드를 펼쳤다.

특히 이번에는 축제엔 대전시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에서 시장 및 시의회의장과 시의원단, 경제인 등 120여 명이 방문해 축제를 직접 참관했다. 또 중국 북경에선 축제 해외홍보대사인 정근호씨가 축제홍보와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언론사(CCTV, 인민화보), 기관, 문화예술인 등 14명의 중국홍보단을 인솔하여 축제에 참가해 개막식에서 축하취회를 하고 축제현장을 취재하였으며 대전홍보물 제작을 통해 중국에 보도되었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전시에서 주최하게 돼 행사기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며 “특히 수상공연 등이 인기가 많았다. 앞으로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뿌리공원 심민호 학예사 제공)

우리 안동김씨는 문종퍼레이드에 대전종친회(회장 김문회) 회원과 대종회장 가족 4명이 참석하였다. 뿌리공원에는 안동김씨 상징조형물이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족보박물관에는 안동김씨 최초 족보인 경진보(1580년 간행)원본, 충렬공 묘지석, 문영공 묘지석 복제품, 1979년에 발간한 2차 기미보 등 족보와 족보 수단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대전종친회 재청 총무제공

익원공 (諱 士衡) 제 604주기 부조묘 제사 봉행



도암사내 현판들

지난 8월 29일(음 7월 29일) 밤 10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도암서원 내 익원공 부조묘에서 익원공 제604주기 기제사가 강릉, 대구, 서울 등 경향 각지에서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사의 초

헌관은 재영 동추공종회장, 아헌관에 봉회대종회장, 종헌관에는 영재목사공종회장, 집례에는 종원종친이었다.

도암서원에는 중국 명나라 황제로부터 효자정려문을 받은 영모당(永慕堂) 김 질(金 質)선조가 주벽(主壁)으로 모셔져 있고, 영모당의 증손 은송당(隱松堂) 김경철(金景哲), 현무재(賢武齋) 김익철(金益哲) 선조가 배향되어 있는 이곳은 서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강학공간과 사묘공간을 잘 갖추고 있는 곳으로 특히 봉안각의 녹권함과 정려, 하마비가 같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7호로 지정되어 있고 익원공 부조묘는 서원 경내 위쪽에 모셔져 있다.

이날 제사에는 익원공 후손뿐 아니라 봉회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文)재호, (都)대회종친이 참여하였다.

만길 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 제공

전 뿌리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행사 주최자가 대전광역시 중구 청에서 대전광역시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효문화 뿌리축제’에는 문종 참가자 및 관람객 등 15 만명이 찾아 축제를 만끽했다.

이들이던 행사기간이 올해부터 3일로 연장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체험행사로 채워졌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즐거우며 함께해 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막행사와 문화, 전시, 체험, 부대행사 등 총 5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문종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효 그랜드세일을 비롯해 낙화놀이 및 수상공연, 직장산 효마당극장, 효화수분, 문종명랑운동회, 만성선조 숭모제, 나의 뿌리엽서 보내기 등 축제의 주제를 부각하면

대중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 운영합니다.

1. 구 홈페이지 운영 실태

가. 구 홈페이지(andongkim.net)는 전 관리자가 처음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2년부터 대중회의 예산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보안도가 낮아(제로보드 4.0) 수시(2011년에 3차례)로 불량 게시물이 등재되거나 바이러스의 오염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비 지출현황

연도별	예산액	결산액	파종회	합 계
2002	1,000,000	1,000,000		1,000,000
2003	3,000,000	3,000,000	2,600,000	5,600,000
2004	3,000,000	3,000,000		3,000,000
2005	4,000,000	3,350,000	1,000,000	4,350,000
2006	6,500,000	5,000,000		5,000,000
2007	6,500,000	5,000,000		5,000,000
2008	7,300,000	5,380,770		5,380,770
2009	5,500,000	5,282,000		5,282,000
2010	5,500,000	5,575,750		5,575,750
합 계	42,300,000	36,588,520	3,600,000	40,188,520

파종회 지원금 郡,文,都,提,按,翼 각 500,000. 大,書 각 300,000

나. 문제점

금년 정기이사회에서 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운영방안을 관리자와 협의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홈페이지 폐쇄 등)가 생겨 금년 6월 3일 임시이사회에서 관리자의 제의에 따라 대중회에서 관리하기로 하여 8월 3일부터 일부 업무를 인수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9일 악성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로 인해 내용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지 못하고 홈페이지 기능이 상실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홈페이지(andongkimc.kr)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연도별 운영비용내역 (2011년은 7월까지)

연 도	도메인, 호스팅비	기술적비용	관리자비용	평가회비	합 계
2008	399,500	3,118,040	1,463,230	400,000	5,380,770
2009	942,000	2,260,000	1,680,000	400,000	5,282,000
2010	861,750	2,354,000	1,680,000	650,000	5,575,750
2011	558,000	976,000	974,120		2,508,120

2. 새로운 홈페이지 구성

가. 제로보드 4(zeroboard 4)에서 알지보드(RGboard)로 보안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불량 게시물이나 악성 바이러스 오염으로부터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각종 자료는 구 홈페이지 자료를 이전하여 전 홈페이지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전된 내용 중 내용 제공자가 삭제할 희망할 경우 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 할 것입니다.

라. 기타 새로운 홈페이지 내용에 관한 종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 앞으로의 홈페이지 운영 계획

가. 홈페이지 관리는 대중회에서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과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종친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開城尹公 享祀 奉行

지난 10월 9일 12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원리 개성윤공 지단에서 많은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개성윤공 향사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의 초헌관은 이경(履暻) 개성윤공파종회장, 아헌관에 봉회 대중회장, 종헌관은 개성윤공파종회부회장이었고 집례와 대축은 태운 대중회사무총장이었다.



개성윤공파에서는 매월 10월 둘째 일요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는데 이날은 직계 후손은 물론 출가한 종친(女), 그 자손인 외손 등 가족이 다수 참석하였다.

아 현위치에 7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설단 하였다.

태복개성윤공파종회총무제공

相國 대중회 고문 별세 삼가 冥福을 빕니다.

대중회 고문 개성윤공파 상국 씨께서 지난 8월 8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1926년 평북 박천군 가산면에서 출생하여 1945년 조선민주당 박천군 덕안면 당위원장을 역임하다 월남하여 1960년 육군에 입대하여 병역을 마치고, 박천군민회 총무를 거쳐 평안북도 서기로 공직을 시작하여 1981년 정년퇴임 후 명예박천군수를 역임하였고, 육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종친회에 관심을 가지고 월남 이후 작고 시까지 개성윤공파 파종회 창립과 파종회 총무 파종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개성윤공 설단묘를 조성하여 매년 향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중회 이사, 부회장, 고문으로 종친회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대중회 역사의 증인을 떠나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관련행사 거행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제457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월 23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계례의 집(1층 강당)에서 천안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안동김씨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허용기) 주최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봉회 대중회장은 격려사에서 충무공기념사업회와 천안시 각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라며 충무공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9월 29일(음 9월 初丁日) 오전 11시 제 418주년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추모제례가 충북 괴산군 괴산을 능촌리 충민사 현지에서 괴산군 유립 주최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헌관은 초헌관에 윤병준(괴산군교육장), 아헌관 신

용식(괴산군부군수), 종헌관에는 김동찬(유립)이었다. 제례에는 괴산 유립을 비롯하여 괴산군내 각 기관장과 군민은 물론 상천 제학공파 종회장을 비롯한 많은 종친이 참석하였고 대중회에서는 사무총장, 태운 부회장(안렴사공파 종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香 田 園 藝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48-21
TEL :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 02-445-6999
H.P : 010-2490-0707

전국 꽃배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 재 군





▲ 필자근황

이 글은 「빛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시골노인」에서 저자의 승인을 받아 전제한 것입니다. 글을 쓰신 김창희 도평의공파종회장은 의성출생으로 의성향교전교, 박약회부회장, 의성도서관장, 의성신문주필이며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에 출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은 침묵 속에 대범함을 지키고 현실을 잘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자랑만 일삼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자는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거안제미(擧案齊眉)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 올려 남편 앞에 가져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지극히 공경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출처는 후한서(後漢書)의 일민전(逸民傳)이다. 당시 양홍(梁鴻)이라는 일민이 살았는데 그의 자는 백란(伯鸞)이다. 후한의 부풍군 사람으로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였으나 마음가짐만은 곧았다. 같은 고을의 맹씨(孟氏) 가문에 맹광(孟光)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몸은 비대하고 이마는 내밀어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살색마저 검검수리한 일대의 추녀(醜女)였지만 힘은 돌절구를 들어 옮길 정도

못생겨도 남편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여자

로 세었다. 나이 서른이 되었는데도 그 꼴에 혼인자가 나오면 물리치고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아 걱정된 부모는 그 사유를 물었다. 그 처녀는 “양홍(梁鴻)과 같은 훌륭한 분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고 처녀는 대답하였다. 양홍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정식으로 청혼하였다. 그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고 혼례를 치렀다. 칠팔일이 지나도록 양홍이 새색시를 외면하자 참다 못해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당신께서 이상이 매우 높으셔서 어느 누구의 청혼도 거절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겨우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양홍은 대답한다.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여자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대는 아름다운 비단옷에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있지 않소? 그러한 여자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요.” 라고 하자 새색시는 알아차렸다는 듯 머리는 풀어서 아무렇게나 둘러서 묶고 헤어진 무명옷에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나오자 양홍이 크게 기뻐하여 별명을 덕이 빛난다고 ‘덕요(德耀)’라 지었다. 그들은 패룡산 속에서 막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양홍이 왕실을 비방하는 시를 지어임금에게 쫓기게 되자 성과 이름을 바꾸어 오(吳)나라로 건너가서 고백통(皋伯通)이라는 명문대가를 찾아가 방앗간 일을 도와주며 지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매양 밥상을 들고 눈썹 높이로 들어 올려서 바쳤다. 고백통은 남편을 저와 같이 지극히 대하는 것을 보니 평범한 삼남은 아니라고 여겨서 백통은 양홍 내외를 자기집에 들어와 살게 하였다. 그들의 ‘지공치순’한 태도로 생활이 안정되자 양홍은 수십 편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가 죽자 오나라의 임금 곁에 묻어주었다. 결국 그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아! 정말 못생겨도 남편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가! 향간의 속담을 적어본다. “계집은 젊어서 여우가 되고 늙어

서는 호랑이가 된다.” 또는, “여자는 늙으면 독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남편의 비위를 잘 맞추지만 늙으면 내 주장이 강해 남편에게 못되게 굴며 젊어서는 온순하게 대하지만 늙으면 방자해져서 남편을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요즘 세상에도 내외가 해로(偕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고전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처세 방법이기도 하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듯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밝은 지혜를 어둠 속에 간직하며 전혀 남에게 알리지 말며, 청렴결백하면서도 혼탁한 세속에 묻혀 살면서 홀로 고고한 척 하지 말며, 자기 몸을 굽힘으로서 몸을 펴는 자벌레와 같이 앞으로 정진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방법이며 몸을 안전한 곳에 맡기는 처세와 보신의 술책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숨기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때 삼가는 것이니라(莫顯乎隱 莫顯乎微 蔽 君子慎獨也)”는 말이 있다. 이말은 유교경전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의 세 번째 글귀이다.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감추어 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는 성경의 말씀이다. 결국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사로운 말이라도 하늘의 들으심은 우뢰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으니라. 모두들 같은 맥락의 말들로서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한편, 생각하면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은 곧장 숨어버리고 숨기려고 애쓰는 것은 잘 드러나니 이것이 하늘의 이치인가. 위의 말씀들은 표리부동(表裏不同)하고 한결같지 못한 우리네의 마음과 행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도평의공파 수도권 종회(재경 화수회) 재창립 총회 개최

재경 도평의공파(세거지:경북 의성군 사촌리, 청송 일대)에서는 지난 9월 24일(토) 정오 12시 대종회 회관 회의실에서 도평의공파 수도권 종회를 재창립하였다. 과거 수십년간 이어 오던 도평의공파 재경화수회가 일시(몇년간)중단되었는데 이를 복원시킨 것이다. 재창립이라 조촐히 행사를 하여 3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김봉희 대종회 회장님은 축사에서 안동 유교권이 의성, 봉화 등으로 확장, 시행됨에 따라 안동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선, 후 김이 아니라 우리가 안동 김가이고 후안동이 후안동임을 인식하는 분명한 역사 의식과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는 말씀을 하였다. 또 충렬공 탄신 800주년을 맞아 누구보다 앞장서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자는 재창립의 축하인사와 안동권에서 가장 가까운 도평의공파의 역할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안건 토의에서 신임회장에 원중 종친



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원중 회장은 일찍이 공직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30년 이상 오랫동안 봉직하였다. 원중 회장은 과거 송조의 뜻을 이어받고 항상 새로운 개혁으로 모임을 알뜰히 하자는 것과 대종회를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를 협의와 연구를 통

해 보필해 나갈것이라고 인사의 말씀을 하였다. 이어 감사에 진 종친과 일수 종친이 선임되었고, 부회장으로 경기, 인천, 서울 담당으로 시훈, 대희, 운중 종친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에 우회 종친이 선임되어 안동능골(동)직이 350년 이상 지켜온 후손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이사진은 도평의공파 안의 소파 11개 계파 중에서 1인씩 선임하였고 이는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사업계획으로 재창립이라는 과거에 해오던 사업을 이어받고 재정립하려는 회장단의 긍지를 기대해본다. 이어 대종회 김태운 사무총장의 대종회 소개와 사업, 또 대종회 사무실에 비치된 각종 중요한 역사 유물과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다. 폐회 후 회관 1층 식당으로 이동하여 김봉희 대종회 회장님의 금일봉과 기타 기부금으로 즐거운 식사와 단합의 시간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전 일정을 마쳤다.

우회 사무국장 제공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 8. 1- 10. 11)

- | | |
|--|--|
| <p>● 평생회비</p> <p>• 20만원: (按)원탁(과산) (翼)성준(부산),영식(서울) 計: 600,000원</p> <p>● 찬조금</p> <p>• 7만원: (按)태봉(인천)</p> <p>• 5만원: (都)김해중종 (按)송희(서울),한희(아산) (翼)용해(인천)</p> <p>• 3만원: (按)대국(서울) (文)대희(서울) (都)영수(서울) (翼)영희(서울) (翼)재현(서울)</p> <p>• 2만원: (翼)수일(군산) (翼)영채(양양) 計: 460,000원</p> <p>● 통상회비</p> <p>• 5만원: (按)재관(청원) (翼)안식(영주)</p> <p>• 3만원: (提)정용(천안) (按)이희(서울),재왕(증평) (翼)태철(부여)</p> | <p>• 2만원: (都)인회(경북) (翼)선동(경도) (翼)재철(인천) (文)사용(서울),태일(파주) (都)서운(인천),수석(대구) (提)재호(서울),규인(서산),재관(인천),규판(서울)</p> <p>(按)재우(서산),태수(서울),태형(천안),태영(영동),덕균(대전)</p> <p>(翼)정영(충주),봉수(안동),정희(천안) (都)규만(안양) (正)태용(서울)</p> <p>(未)정준</p> <p>• 1만5천원: (按)용식(안동)</p> <p>• 1만원: (文)수삼(예천) 計: 685,000원</p> <p>● 10억 상금</p> <p>• 20만원: (都)시찬(서울) 計: 200,000원</p> |
|--|--|

종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본 대종회보는 종친 여러분께서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원고는 연간 접수하고 있사오니 많은 제출을 바랍니다.
2. 대종회 통상회비는 연20,000원 평생회비는 200,000원 이오니 금년분 회비 미납 종친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대종회보에 광고 게재 하실분 연락 주시면 검토 후 게재해드립니다.
4. 대종회보에 게재되지 않은 족보발행 권유나 도서류 판매 등은 시기행위(詐欺行爲)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대종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